

I. 검토배경

- 최근 일부 생명보험회사¹⁾가 신용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에 한해서만 신용카드를 수납하기로 함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들의 협상결과에 관심이 집중
 -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및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지난 3월 『여신전문금융업법』(이하 여전법)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다시 첨예화됨.
-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경우 그동안 크게 발전하는 가운데 신용카드시장의 제도, 가맹점수수료, 구조 등에 대한 개선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.
 -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정부가 조세투명화 등을 위해 실시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으로 인해 크게 발전
 - 그러나 신용카드시장을 규제하는 여전법, 높은 수수료(가맹점수수료, 카드이용수수료)와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시장구조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음.
-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용카드시장의 현황 및 주요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현재 보험회사의 신용카드 수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.
 - 지금까지 있었던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개선논의를 정리함으로써 보험회사와 관련된 신용카드 수납, 가맹점수수료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.

1) 삼성, 교보, 대한생명 등이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 결제 대상 상품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해 협상 중